

# 중소기업, 설 자금 12조 5000억원 공급

금융위 '설 연휴 금융 민생지원' 발표

설을 앞두고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은·기은을 통해 긴급한 자금요구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조4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대금결제·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자금은 공백이 없도록 설 연휴 30일 전부터 선제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또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 대금으로 500억원을 대출한다. 소매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시장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상인회당 2억원(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개월, 금리는 최고 연 4.5%다.

설 연휴기간 224만여 개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으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 등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지체를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로는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으로 설 연휴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따라 만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월19일)로 만기 등이 자동연장된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9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도 부과되는 사

례가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월14일)에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대입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전 2일간 휴일영업을 실시한다. 설 연휴 중에는 창구 방문을 통한 대학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만큼 대체영입기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납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철 기자 imnews656@

# 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확대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확대·노동자 5만여명 추가 포함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경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업·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업·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했다. 우선 신규제출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인센티브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했다.

당초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자와 무관하게 20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된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돼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기자 kmjhn201@

# 스마트폰 속 사진·동영상 즉석 인화기 '포토디'

사진에 글·동영상 함께 담을 수 있어 기업, 상점, 지자체 홍보 활용성 높아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몇 초만에 즉석에서 인화할 수 있는 사진인화기가 공개됐다. 특히 동영상도 QR코드를 통해 사진으로 담을 수 있어 주목을 끈다.

지난달 31일 (주)팬텀글로벌(대표이사 김정주)이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디앤씨(대표이사 정해진)와 공동으로 개발한 동영상사진인화기 '포토디(PHOTO:D)'를 선보였다. 기존 즉석사진인화기는 자체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만 인화해 주는 것과 달리 포토디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고객이 직접 간단한 조작을 통해 몇 초 만에 즉석에서 인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진인화기이다.

3x5 사이즈의 사진에 다양한 프레임, 한글과 영문 및 숫자로 글을 써넣을 수 있는데 특히 QR코드를 활용해 사진에 동영상도 담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포토디는 사진전용인화기, 자체 개발한 셋톱박스 서버가 초고속 인터넷 연결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스탠드얼론 타입의 키오스크 형태로 개발돼 사진인화 시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쿠폰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기존의 즉석사진인화기에 비해 장비 판매가격을 25~30% 수준으로 대폭 낮췄고 사진인화 시 열로승화전사방식으로 인화돼 기존의 사진처럼 깨끗한 화질을 제공한다.

한편 팬텀글로벌과 디앤씨는 기업용 B2B 시장과 일반 고객용 B2C 시장에서 포토디를 제품



(주)팬텀글로벌이 디앤씨와 공동 개발한 동영상사진인화기 '포토디(PHOTO:D)' 모습.

판매와 대여서비스 및 수익배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포토디 운영자는 사진 인화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기업이나 상점, 지자체 행사에서 홍보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사진 하단에 마련된 공간에 신제품 이미지를 노출하고 브랜드도 글로 써넣을 수 있으며 홍보 동영상을 QR 코드로 담아 제품과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포토디는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이화여대 입구와 용인에 위치한 카페 등지에서 시범 설치운영 중이다.

포토디 마케팅과 판매를 총괄하는 (주)코윈스의 심현대 대표는 "기업 홍보 차원에서 포토디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본다"며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는 행사 등을 진행할 때 포토디를 설치한다면 고객에게는 무료로 좋은 추억을, 기업에게는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neunga@

# 현대차, 수소차 체험관 '파빌리온' 운영

현대자동차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수소 에너지'를 다양한 각도로 형상화한 체험관 '현대자동차 파빌리온(Hyundai Pavilion)'을 운영한다. 현대자동차 파빌리온은 평창올림픽 플라자 부지 내에 건축 면적 1225㎡(약 370평), 높이 10m 규모로 조성됐다.

실내 전시공간은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씨앗을 물방울로 형상화한 '워터(WATER)관'과 수소전기차 기술의 원리를 보여주는 '하이드로젠(HYDROGEN)관'으로 구성됐다.

'워터관'은 현대자동차의 미래 비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공간으로 무한한 에너지원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열어나갈 수소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미래 사회의 '씨앗'이 될 '수소'를 물방울로 형상화했다.

'하이드로젠관'은 수소전기차 기술을 수소의 추출부터 수소전기차 구동 이후 물의 배출까지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연에서 얻는 태양에너지→물의 전기분해→연료전지 스택→수소전기차 물 생성의 4단계를 각기 다른 컬러와 소재를 사용해 감각적으로 구현해 관람



수소 에너지를 다양한 각도로 형상화한 체험관 현대자동차 파빌리온 전경 모습. 현대자동차 제공

객이 각 단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기아차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차량부품 공시 후원사로서 승용 및 승합 2600여대, 버스 4만7000여대(대수 약 1200대 상당)를 비롯해 차세대 수소전기차 및 수소전기 버스 등의 차량과 후원금을 지원한다.

또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라이브 사이트를 운영해 시민들이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아이스링크를 운영하고 올림픽 기간 내에는 단체 응원전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영재 기자 jae-63@

**불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산다**

World Top 3  
**Cho Jung**  
ORIGIN OF SPARKLING WATER

초정탄산수  
500 mL(0 kcal)

초정의 물로 일컫는 파란 초정탄산수  
· 세계 3대 광천수 초정리 광천수 · 대한민국 최초 탄산수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등재 · 세종대왕이 사랑한 물